

## 170312 '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유' (히 9:27-28)

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. 예외 없이 다 죽게 만드는 어떤 원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유일한 자료가 성경입니다.

롬 6: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

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, 즉 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.

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(=의학적 사망)이요,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이룹니다.

영적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것으로 둘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.

계 2: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

이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기도, 거부하기도 합니다

복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고 더 오래가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. 우리는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.

이생은 짧고 내세는 영원한데,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
천국은 영원한 복락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감옥과 같은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의 처소입니다.

이생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의 복락을 얻는 것, 즉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것입니다.

마 5:29-30 -----

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인생 사는 것도 고달픈데, 죽은 다음이 더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.

그러나 이런 슬픈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2 천 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헤븐으로부터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

십자가에 달리사 몸짓고 피흘리며 죽임당하사 그 대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받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.

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죄와 죄짐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.

고전 2:2 -----

십자가의 은혜는 지옥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어 영적인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며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여 이생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합니다.

이것이 복음입니다.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, 이 복음을 붙들고 살며, 이 복음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.